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small>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small>	
		배포일자	2022년 7월 4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자치경찰운영과	담 당 자	• 자치협력팀장      한대규 ☎458-7291 • 담당자            박정숙 ☎458-729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록 위원장, 여성단체와 현장소통... 여성 안심도시 인천 만들 것

- 인천자치경찰 2호 사업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도시 인천’ 시책사업 홍보 -
- 위원장, 여성단체와 소통·협력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안심 시책 함께 추진 할 것 -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정착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7월 4일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동례)를 방문해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와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지난해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시민사회와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 자치경찰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2호 사업으로 선정된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도시 인천’ 추진 과제인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 취약 환경 개선 및 관리,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여성 안전을 위한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자치경찰제도와 중점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은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과 사회도 행복해 질 수 있다”며 “인천 전역을 두루 살피고 여성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안심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시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출범과 함께 시작한 1호 사업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이어 올해 2호 사업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도시 인천’과 같이 시민 체감형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장소통을 위해 구 주민자치회,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기관 등을 지속 방문해 애로사항 및 정책수립에 대한 제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붙임> 사진자료

